저소득가구의 가구유형별 행복도 차이

하석철*

Difference in happiness across household types among low-income households

Seok Cheol Ha*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 1,425가구를 가구구성원에 따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부-미성년자녀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 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단독가구,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였고, 개인과 가구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의 행복도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가구유형별 자원 구조와 정책 욕구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 소득보장 정책뿐만 아니라 가구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저소득가구, 가구유형, 가용자원, 행복도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of household heads by household type among low-income households. For this study, a total of 1,425 participating households in the Seoul Stepping Stone Income Pilot Project were classified into seven household types according to household composition, and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of household heads were analyzed using couple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as the referenc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either minor or adult children, which have limited access to human resources within the household, were relatively vulnerable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instrumental resourc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level factors, household heads in single-person households,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adult children reported lower levels of happiness than those in couple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ces in resource structures and policy needs across household types. It further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of low-income households in Seoul,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by differentiated support tailored to household type.

Key Words : Seoul Stepping Stone Income Pilot Project, low-income household, household type, available resources, happiness

*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Center, Seoul Welfare Foundation), E-mail: skclha@welfare.seoul.kr, Tel: 02-6353-0418

Ⅰ. 서론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수준은 147개국 중 67위로 나타났다. 38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33위에 머무는 수준이다(Helliwell et al., 2026).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김가원·황혜신, 2021),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자 사회적 진보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Helliwell et al., 2013). 이러한 행복감은 객관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출 경우 안녕(well-being)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 풍요(flourishing)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며, 주관적 차원의 환경 묘사에 중심을 둘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로 표현되기도 한다(김미곤, 2015).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감이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행복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행복도는 그를 둘러싼 환경, 특히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구는 근대사회의 전형적 가족 형태인 핵가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성원들이 함께 거주하며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는 것에 기초한다(홍경준 외, 2022).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가구유형 또한 그간의 핵가족에 기초한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가구형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은 생계를 함께 하고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공유하는 일차적인 관계망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도는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서울이라는 도시적 환경에 주목한다. 서울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2024년 1인가구의 비율(39.9%)이 전국(36.1%)보다 높다(국가데이터처, 2025). 또한 한부모가구의 비율(6.8%) 역시 전국 수준(6.7%)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서울특별시, 2025). 더불어 영유아 자녀가구 감소, 고령가구와 비친족가구의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역시 함께 발생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독립과 중장년층의 이혼·별거, 고령층의 사별과 자녀 분거 등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와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와 맞물리면서 가구유형별 복지 욕구를 세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고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서울시민의 행복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양자(兩者)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몇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연구대상이 한정되거나 다양한 가구유형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추거나(Chyi and Mao, 2012; Hwang and Sim, 2021), 단독가구와 같은 특정 가구유형만을 대상으로 한다(임성욱, 2022). 또한 가구유형을 구분하더라도 단독가구와 다인(多人)가구로 이분화하는 수준에 머문다(신미아, 2021). 행복감을 지칭하는 용어가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 등으로 구분(김미곤, 2015) 또는 혼용(원영훈·윤지웅, 2020)되어 사용

될 수 있다는 논의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해당 연구들은 주로 고령층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유형과 삶의 질(박순미·문수열, 2019; Henning-Smith, 2016; Bolina et al., 2021) 또는 삶의 만족도(최경원 외, 2012; 이현지, 2014; 김재희, 2021; An et al., 2008)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층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대상을 구성하고 가구유형 역시 보다 세분화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해 저소득가구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과 행복도 간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이야기한다(이민아·송리라, 2014; 류지아, 2016; 정해식·김성아, 2019; 최유석·김여진, 2021; 고혜진·정해식, 2022; Chyi and Mao, 2012; Hwang and Sim, 2021). 이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단독가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경제적 자원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해당 가구유형은 동일하게 경제적 자원은 한정적이나 사회적 또는 도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다인가구 또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낮은 행복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유형에서 낮을 수 있으며 저소득 계층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유형과 행복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노인 또는 단독가구에 집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청년·중장년·노년층을 포괄함과 동시에 상대적 취약성을 갖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을 경제적·사회적·도구적 자원의 결합 구조로 이해하여 가구유형의 차이가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던 연구대상의 단차원성 또는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용 자원의 의미에서의 가구유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Ⅱ. 문헌검토

1. 행복도

행복도는 행복감의 정도 또는 그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복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행복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행복감(happiness)은 연구자나 연구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복감은 자신의 기량(skills)과 재능(talents), 잠재력(potential)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자기실현적 행복감(eudaimonic happiness)과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의 빈번한 경험과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적은 경험, 만족 차원에서 삶을 평가하는 쾌락적 행복감(hedonic happin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Kashdan et al., 2008). 전자가 규범적 차원의 행복감으로서 행위자가 판단하는 현재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치 틀에 기

초하여 규정되는 행복이라면 후자는 좋은 삶에 대한 행위자의 의미 결정에 의존하고, 즐거운 정서적 경험을 강조하는 행복감을 말한다(Diener, 1984).

위와 같은 구분에서 이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전자가 행복감을 개인의 주체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행복감은 즐거운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쾌락을 포괄하는 것이자 생애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인지적 평가를 포함한다(우창빈, 2023; OECD, 2013). 이는 주관적 차원의 행복감이 개인의 삶 전반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행복감을 의미하는 후자의 개념 정의를 따른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함께 다루어 행복감을 정의하며(전미애·김정현, 2017), 행복감을 삶에 대한 정서적 만족과 내면의 가치 있는 주관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존적 만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박성복, 2004). 또한 행복감의 대상이 되는 삶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기도 한다(방영숙·남기민, 2009).

그러나 행복감을 좋은 삶(목표)과 현재 삶의 부합(달성) 정도에 따른 만족감과 부정적 정서 대비 긍정적 정서의 상대적 다수 경험과 같이 인지적·정서적 욕구 충족의 수준으로 정의하였을 때 일정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인지적 차원에서 그것을 만족하여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이다(정해식 외, 2019). 물론, 물리적·객관적 차원의 조건이 만족 차원에서 행복감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건만을 중요시할 경우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인 조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태 기준'의 행복감을 강조할 경우 행복감이 형성되는 과정 즉, 즉각적인 감정으로서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앞으로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 생성될 수 있는 행복감을 함께 다루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기억과 기대감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행복도의 측정 과정에서 행복감의 모든 시간적 범위(즉각적 행복감과 평균적인 행복감)가 중요하다는 논의(Layard, 2011)와 맥(脈)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긍정적 감정의 경험과 삶에 대한 만족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인지적 차원에서의 욕구 충족과 만족으로 정의하며, 행복도는 상기의 행복감의 수준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가구와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구분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가구 역시 합의되고 일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이다(홍경준 외, 2022; Hoffmeyer-Zlotnik and Warner, 2008). 그럼에도 가구를 개념 정의하는 데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의미 요소들은 존재한다. 재정적 차원의 공동 살림살이(common housekeeping in a financial sense), 조직적 차원의 공동 살림살이 (common housek-

eeping in an organisational sense), 동거(co-residence), 가족(family)이 그것이다(Hoffmeyer-Zlotnik and Warner, 2008). 각각의 의미 요소들은 다시 엄격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재정적 차원의 공동 살림살이의 경우 공동의 예산(budget)을 공유하는 것부터 생활필수품(essentials of living)의 공동 기여로 나눌 수 있고, 조직적 차원의 공동 살림살이는 취사 및 취침을 함께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공유(common housekeeping)하는 것부터 식재료를 포함한 음식의 공유(share food)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거는 실제로 함께 사는 것(living together)부터 대부분의 밤 시간을 보내는 주소지의 공유(the address where most nights are spent)로, 가족은 혈연, 혼인 등과 같은 법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관계(affective ties)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홍경준 외, 2022; Hoffmeyer-Zlotnik and Warner, 2008).

이와 같은 의미 요소와 세부 내용에 따라 가구는 다양하게 조합되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동거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지며, 살림살이의 공유는 부가적인 요인으로 활용된다(홍경준 외, 2022). 일례로 미국에서 정의하는 가구는 '일반적인 거주지로서의 주거단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를 점유하는 모든 사람들'이다(US Census Bureau, 2023). 가구의 정의에 가족뿐만 아니라 주거단위를 공유하는 비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하나의 주거단위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동거인(partners)과 공동세입자(roomers)와 같이 주거단위를 공유하는 집단 또한 하나의 가구로 집계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가구 정의는 살림살이의 공유보다는 주거의 공유 즉, 동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통계청(2020)에서 정의하는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실질적 동거를 필수 요소로 하고 비친족관계(동거인)를 포함한다. 동거를 중요 요인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미국과 동일하나 생계(살림살이)의 공유 또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보장)가구 역시 통계청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에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보건복지부, 2023). 생계를 같이 함은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등임을 의미하고 주거의 공유는 사실상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함을 뜻한다(보건복지부, 2023). 이러한 정의 역시 동거와 생계의 공유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통계청(2020)의 정의와 유사하다. 다만, 단순 동거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상이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구는 주거 또는 생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고, 가구유형은 가구를 구성하는 성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유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고 특정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변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4)의 '장래가구추계'는 가구유형을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부+부(모)', '부(모)+미혼자녀' 등으로 구분하는데, 해당 가구유형들은 과거와 다른 위치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부(모)+미혼자녀'의 비율은 2000년에 각각 15.6%와 12.3%, 7.8%에서 2025년에 각각 36.4%, 17.9%, 8.9%로 증가한 반면, '부부+미혼자녀'와 '부부+미혼자녀+

부(모)'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8.2%와 5.7%에서 25.2%와 1.3%로 감소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4)[1]. 근대적 핵가족에 기초한 '부부+미혼자녀'와 3세대 가구의 형태인 '부부+미혼자녀+부(모)'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로 이해되는 '1인 가구'와 '부(모)+미혼자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3. 가구유형과 행복도 간의 관계

한국인의 행복감 개념에서 관계성,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행복감 개념을 비교한 연구(유나영 외, 2015)에서 미국인은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를 행복감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식하나, 한국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로 세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문화를 갖는 서구의 경우 개인의 성취와 만족 등을 통한 행복감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동양은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하며, 개인의 행복감을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김윤태, 2009). 즉, 전자가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루는 성취, 기여 등을 통해 행복감을 인식한다면 후자는 사회적 인정과 안정을 통해 행복감을 인식한다는 것이다(유나영 외, 2015).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집합체임과 동시에 공유 자원의 다차원적 결합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는 가구가 다양한 자원의 결합 또는 결핍에 대한 하나의 구성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일차원에서 동질성을 갖는 가구라고 할지라도 가구의 유형에 따라 가용자원의 수준과 이에 따른 삶의 질과 의미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례로 취약가구로 일컬어지는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간에도 사회적 배제의 유형과 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김안나, 2014)[2], 동일한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모자가구, 부자가구 및 조손가구, 유자녀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라 현금자산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인식한다(홍현미라, 2010). 또한 경제적, 도구적 자원의 취약성이 높은 여성 무배우자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을 겪거나(오혜은, 2017) 유병출근(presenteeism)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신희주, 2024)[3].

이처럼 성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가구는 그것의 유형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가용자원의 양적, 질적 차이가 가구구성원 간 관계의 질과 사회적 안정 및 인정을 통한 행복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개인의 행복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논의는 개인의 효용 평가가 객관적인 결과물에 의해

1) 해당 가구유형 비율은 가구유형을 '1인 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부+부(모)', '비친족 가구', '부(모)+미혼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 '기타'로 구분한 것에 기초한다.

2) 빈곤과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를 소득, 노동, 의료, 교육, 주거, 관계망, 정보·서비스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가구유형별로 그 위험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조손가구는 소득, 의료, 교육에서 특히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여성 한부모가구는 노동에서, 남성 한부모가구는 교육에서 높은 배제 위험을 보인다(김안나, 2014).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가용자원의 유형 및 수준 차이와 이에 기초한 사회적 위험 혹은 욕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의 다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동일한 여성 무배우자가구라고 할지라도 도구적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성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여성의 유병출근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신희주, 2024).

서가 아닌 임의의 준거점(reference point)과의 비교에 기초해 심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Kahneman and Tversky, 1979)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개인의 행복도는 외부의 다른 가구유형, 즉 일종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 내 구성원의 행복도가 준거집단이 되는 가구유형 성원의 행복도보다 낮을 수 있다. 이와 맥(脈)을 같이하여 소득 및 자산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정해식·김성아, 2019)는 개인의 행복도가 준거집단과의 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자원의 집합체로서의 가구 역시 그것의 상대적 비교우위에 따라 행복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행복도가 낮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우선 세대별 1인 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행복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중장년과 노인의 단독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낮은 행복도를 보임을 제시하고(임성옥, 2022),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의 행복도가 부부가구보다 낮음을 보여준다(Hwang and Sim, 2021).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구를 일반가구, 단독가구, 모부자·조손가구로 유형화한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모부자·조손가구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한다(김미곤, 2015). 이와 더불어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의 존재가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이는 가구 내에 손자녀가 있을 경우 노인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Chyi and Mao, 2012)와 결을 같이 한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의 행복도가 낮고, 부양 및 돌봄 부담의 경험 가능성이 높은 미혼자녀동거 등의 가구유형이 부부가구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가짐을 보여준다. 이는 가구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존재(특히, 배우자)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원은 가구 내에서 보완 또는 대체 소득원으로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가구소득의 확대는 가구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50세 이상의 단일세대로만 구성된 가구가 18~49세의 근로연령층(working-age adult)을 포함한 가구보다 높은 우울 유병률을 보인다는 결과(McKinnon et al., 2013)와 결을 같이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어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인 가구의 점유형태를 의미하는 독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며(WHO, 2021), 독거에 의한 고독과 고립의 경험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Smith and Victor, 2019). 따라서 일련의 연구들은 단독가구가 다인(多人)가구보다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김영범·이승희, 2018; 신미아, 2021; 임성옥, 2022; Wilmoth and Chen, 2003; Joutsenniemi et al., 2006; Sun et al., 2011; Hwang and Sim, 2021),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결과(이현지, 2014; 박순미·문수열, 2019; 김재희, 2021; 신미아, 2021; 임성옥, 2022; Henning-Smith, 2016; Hwang and Sim, 2021)를 보여준다. 위의 단독가구와 함께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 등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거주

하는 경우보다 우울(Wilmoth and Chen, 2003; Joutsenniemi et al., 2006)과 스트레스(Kwak et al., 2017), 심리적 괴로움(Henning-Smith, 2016) 수준이 높고, 행복도(Hwang and Sim, 2021)와 삶의 만족도(Bolina et al., 2021)는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도구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특히 그 중요도가 두드러질 수 있다. 가구 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존재는 해당 부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배우자 없는 상황 즉, 무배우자가구의 가구주는 자녀 교육 및 돌봄과 함께 경제활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다중 과업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갈등과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중 과업의 수행과 역할충돌, 높은 부담도 등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가구주의 행복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무배우자 여성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일·가정 갈등과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Raymo et al., 2014), 일·가족 갈등에 대한 직무부담의 영향력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한부모가구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허수연, 2017).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였을 때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구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구유형 간 행복도의 차이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행복도의 영향 요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하에서는 관련 연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김미곤, 2015; 김미곤 외, 2017; 신미아, 2019)되고 연령은 고연령일수록 행복도(김미곤, 2015; 박민진 외, 2021)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곽인숙, 2013; Nikolaev and Rusakov, 2016)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행복도(김미곤, 2015; 김미곤 외, 2017; 신미아, 2019)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여가활동은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신미아, 2019)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복도가 높은 것(변미리 외, 2020)으로 이야기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및 재산, 부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구소득이 많고(김미곤 외, 2017; 신미아, 2019), 부채가 적을수록(윤명숙·이묘숙, 2012) 행복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 내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은 모습을 나타낸다(김미곤, 2015).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도(신미아, 2019; 박민진 외, 2021; 박정혜 외, 2021)가 높고,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Helliwell et al., 2021). 주거상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독거노인의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임성옥, 2022). 더불어 이와 유사하게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또한 볼 수 있다(이인정·김미영, 2021).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초선조사 자료이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집된 공적 자료이다.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 탐색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기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4]. 동(同) 사업에서 소득조건에 따른 참여가구 선정은 자기기입식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구소득 정보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 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초선조사는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개 영역 152문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행복도와 함께 개인과 가구 특성 정보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5]. 더불어 참여가구 선정 과정에서 수집(2022년 4~6월)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공적 자료 역시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행복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제적 자원을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는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신청서(동의서)와 함께 연구 목적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를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425가구의 가구주이다[6].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는 총 1,523가구이나,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례 수 확보와 분석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가구유형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1,425가구의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7].

2. 변수의 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도는 10점 척도로 구성된다. “귀하는 현재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점부터 9점까지 응답이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복의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기의 문항이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차원의 만족을 의미하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복감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4)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사업 시작 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2025년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기초선조사는 참여가구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되기 전에 수행되었다.
6) 해당 조사에서 행복도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7) 가구유형 조정 과정은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다. 행복감을 자기실현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정의하는 자기실현적 행복감(eudaimonic happiness)은 외부의 가치 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여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개인의 정서적이고 인지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쾌락적 행복감(hedonic happiness)은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나 태도를 중시하여 개인의 만족도나 평가 등으로 측정된다(우창빈, 2023). 주관적 차원에서 삶을 평가하는 행복감의 개념은 Cantril Ladder 방식("0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는 사다리에서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느끼십니까?")[8]이나 전반적 행복도(overall happiness)에 대한 질문("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9]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문항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조동훈, 2017; 우창빈, 2023; OECD, 2013).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항 역시 앞선 문항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으로 주관적 차원의 인지적·정서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단일 문항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 문항이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 타당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류지아, 2016), 전통적인 단일 문항을 통한 측정이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대안적인 측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논의(Sandvik, Diener, and Seidlitz, 1993)는 단일 문항이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일정 정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들 역시 단일 문항을 이용하여 행복도를 분석하고 있다(김태현·홍진의·신영전, 2021)[10].

독립변수인 가구유형은 전체 1,523가구에서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가구 내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이 있는 사례(n=49)는 제외하고, 가구원 수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10개의 초기 가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유형은 통합하고 분석을 위한 사례 수가 확보되지 않는 유형(부부-부모가구, 무배우자-부모-자녀가구, 부부-부모-자녀가구)은 제외하여 5개의 가구유형을 중간 단계의 가구유형으로 산출하였다(〈표 2〉 참고).

이후 부부-자녀가구와 무배우자-자녀가구를 다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가구유형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표 3〉 참고)[11].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최종 가구유형을 산출할 때 중간 가구유형의 무배우자-부모가구와 부부-자녀가구 및 무배우자-자녀가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사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다[12].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가 일

8)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0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OECD, 2013)

9) "The following question asks how happy you feel, on a scale from 0 to 10. Zero means you feel 'not at all happy' and 10 means 'completely happy'. 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re?"(OECD, 2013)

10)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수행한 연구(김태현 외, 2021)는 최근 10년 간 약 38편의 문헌이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중 단일 문항을 통해 행복도를 측정한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음을 제시한다.

11) 미성년자녀가구는 미성년자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가구 내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2) 부부-미성년자녀가구에서 손자녀 제외 가구는 4가구, 부부-성년자녀가구에서 손자녀 제외 가구는 1가구, 무배우자-부모가구에서 조부모 제외 가구는 2가구,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에서 손자녀 제외 가구는 8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에서 손자녀 제외 가구는 6가구이다

〈표 1〉 가구원 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초기 가구유형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이상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무배우자 부(모) 가구	무배우자 자녀 가구	부부 자녀 가구	무배우자 다부모 가구	무배우자 다자녀 가구	부부 부모 가구	무배우자 부모 자녀 가구	부부 부모 자녀 가구
가구원 구성	가구주	가구주 + 배우자	가구주 + (조)부모	가구주 + (손)자녀	가구주 + 배우자 + (손)자녀	가구주 + (조)부모	가구주 + (손)자녀	가구주 + 배우자 + 부모	가구주 + (조)부모+ (손)자녀	가구주 + 배우자 + 부모 + (손)자녀
n	623	164	58	186	301	5	109	2	12	14
%	42.3	11.1	3.9	12.6	20.4	0.3	7.4	0.1	0.8	0.9

주: 총 가구 수: 1,474가구

〈표 2〉 중간 가구유형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무배우자-부모가구	무배우자-자녀가구
가구원 구성	가구주	가구주+배우자	가구주+배우자+(손)자녀	가구주+(조)부모	가구주+(손)자녀
n	623	164	301	63	295
%	43.1	11.3	20.8	4.4	20.4

주: 총 가구 수: 1,446가구

〈표 3〉 최종 가구유형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유형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부부-미성년 자녀가구	부부-성년 자녀가구	무배우자- 부모가구	무배우자- 미성년 자녀가구	무배우자- 성년자녀 가구
가구원 구성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미성년자녀	가구주+ 배우자+ 성년자녀	가구주+ 부모	가구주+ 미성년자녀	가구주+ 성년자녀
n	623	164	194	102	61	130	151
%	43.72	11.51	13.61	7.16	4.28	9.12	10.60

주: 총 가구 수: 1,425가구

견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가구원이 포함될 경우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기본적인 집단과 이질적일 수 있고, 분석결과의 명확한 해석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7개의 가구유형은 분석모형에 투입 시 부부-미성년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한 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변수와 함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여가활동 수, 건강상태, 가구소득, 가구재산, 가구부채, 주거상태를 통제변수로 함께 다룬다. 먼저, 성별은 남성은 1을, 여성은 0의 값을 부여하고,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교와 이행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무학(①)부터 대학원 박사졸업(⑦)까지 서열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지난 1주일 간 주업의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만,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지난 1주일 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평소의 주당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1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1로 설정하였다. 여가활동 수는 지난 6개월 간 참여한 여가활동의 수를 이용하였고, 건강상태는 5점 척도(①건강이 아주 안 좋음~⑤아주 건강함)를 이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가구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공적 자료를 이용하여 원자료에 각각 1을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자원에 대해 부연하자면,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의 총액으로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와 금융기관 외 부채, 개인 간 부채의 합을 의미한다. 주거상태는 채광, 환기, 방음, 난방 및 단열, 위생,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거상태 평가 항목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의 응답값(①불량~③양호)을 합하여 하나의 주관적 주거상태 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3. 분석과정 및 방법

분석은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과정에서 t검정과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가구유형에 기초한 가용자원의 차이가 개인의 행복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가구유형별로 자원의 차이를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이때 자원의 유형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유형별로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은 이하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접근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가구유형만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고(Model Ⅰ),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가구주의 특성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여가활동 수, 건강상태를 추가하였다(Model 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에서는 가구 특성(가구소득, 재산,

부채, 주거상태)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13]. 분석은 SAS OnDemand for Academics를 이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도는 평균 4.10점을 나타내었고, 중위값은 4.00점으로 나타났다[14]. 이어서 가구유형은 단독가구가 43.72%로 가장 많고, 부부-미성년자녀가구와 부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 등이 각각 13.61%와 11.51%, 10.60%로 뒤를 잇는다. 가구유형별 행복도는 부부-미성년자녀가구가 4.80점으로 가장 높고,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3.94점)와 단독가구(3.91점),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3.75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도 점수를 보인다. 더불어 가구유형 간 행복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은 남성(49.47%)과 여성(50.53%)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행복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성: 4.10점, 여성: 4.11점). 연령은 평균 51.70세였고,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10.81%, 중졸 이상~고졸 이하가 49.54%, 초대졸 이상이 39.65%로 중졸 이상~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어서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결과는 비활동집단(51.44%)이 활동집단(48.56%)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행복도는 활동집단(4.37점)이 비활동집단(3.8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여가활동 수는 평균 2.30개였으며, 여가활동 수가 많을수록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불건강(아주 안 좋음+안 좋음)집단이 53.12%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건강(건강+아주 건강)집단과 보통집단이 각각 28.49%와 18.39%로 뒤를 이었다. 건강수준에 따른 행복도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가 높다.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약 65만 원이었고, 총재산과 총부채는 각각 약 9,000만 원과 2,700만 원이었다. 더불어 소득과 재산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채는 행복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13.63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 역시 높은 모습을 보였다.

2. 가구유형별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 수준 차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함께 이에 기인한 사회적, 도구적 취약성을

13) 이 연구는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도는 점수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연속형 변수에 준하여 해석하였다. OLS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평균적 관계를 추정하는 데 적합하며, 가구유형별 행복도 수준의 차이를 통제변수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귀분석 수행에 앞서 주요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잔차 분포와 산점도에서 뚜렷한 비선형 경향성이나 심각한 이분산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 역시 허용 가능한 수준(max=3.17)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4) 행복도 변수에 대해 부연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점과 9점이었고, 왜도값과 첨도값은 각각 0.01과 0.08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Mean(SD)	t / F / r
행복도	-	-	4.10(1.80)	-
가구유형	단독가구	623(43.72)	3.91(1.80)	8.27***
	부부가구	164(11.51)	4.30(1.82)	
	부부-미성년자녀가구	194(13.61)	4.80(1.78)	
	부부-성년자녀가구	102(7.16)	4.25(1.69)	
	무배우자-부모가구	61(4.28)	4.38(1.59)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130(9.12)	3.94(1.76)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	151(10.60)	3.75(1.67)	
성별	남성	705(49.47)	4.10(1.89)	0.09
	여성	720(50.53)	4.11(1.70)	
연령	-	-	51.70	-0.11***
교육수준	-	-	4.11	0.14***
교육수준(범주)	초졸 이하	154(10.81)	3.94(1.70)	25.53***
	중졸 이상~고졸 이하	706(49.54)	3.81(1.77)	
	초대졸 이상	565(39.65)	4.51(1.78)	
경제활동 여부	활동	692(48.56)	4.37(1.79)	-5.46***
	비활동	733(51.44)	3.85(1.77)	
여가활동 수	-	-	2.30(1.22)	0.30***
주관적 건강상태	-	-	2.58(1.18)	0.32***
주관적 건강상태(범주)	불건강	757(53.12)	3.65(1.75)	68.14***
	보통	262(18.39)	4.20(1.59)	
	건강	406(28.49)	4.88(1.72)	
총소득	-	-	649,967(678,774)	0.18***
총소득(ln)	-	-	9.87(5.89)	0.14***
총재산	-	-	90,497,251(94,533,575)	0.10***
총재산(ln)	-	-	17.39(2.23)	0.13***
총부채	-	-	26,668,191(53,467,267)	0.02
총부채(ln)	-	-	8.74(8.49)	-0.01
주관적 주거상태	-	-	13.63(3.14)	0.20***

*** p〈.001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절에서는 가구유형별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 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미성년자녀가구가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69.59%)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45.88%) 역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근로 및 사업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역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많은 모습을 보인다. 부부-미성년자녀가구와 더불어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부부가구, 부부-성년자녀가구)의 경우 적지 않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기초한 근로 및 사업소득 수준 역시 비교 대

상이 되는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이어서 사회적 측면에서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취약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별 가구주의 사회적 고립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15].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단독가구의 사회적 고립도가 가장 높고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와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 역시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높은 고립도를 보인다.

가구유형별 도구적 자원 수준은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 교육 및 양육 역할과 부담도 등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았다[16]. 〈표 7〉은 미취학 및 취학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참여도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도 인식 수준을 부부-미성년자녀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간에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부부-미성년자녀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의 가구주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해당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전자(前者)가 후자(後者)보다 더 적은 미성년자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도 인식 수준이 더 높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더 높은 직무

〈표 5〉 가구유형별 경제활동 참여율 및 소득 비교

(단위: 가구, %, 원)

구분	가구유형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부부-미성년 자녀가구	부부-성년 자녀가구	무배우자-부모가구	무배우자-미성년 자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 가구
n(가구)	623	164	194	102	61	130	151
가구주 여성비율	53.93	25.00	29.38	14.71	45.90	92.31	81.46
가구주 경제활동률	40.13	41.46	69.59	46.08	47.54	58.46	57.62
배우자 경제활동률	-	31.10	45.88	33.33	-	-	-
근로·사업소득	152,473	426,411	1,383,268	716,735	385,703	644,690	591,914
총소득	263,723	730,103	1,474,265	1,068,927	711,914	695,925	749,880
가구균등화총소득	263,723	516,261	740,294	583,294	492,095	424,500	495,340

15) 사회적 고립도는 서울 디딤돌소득(舊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자료 중 세 가지 항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의 유무 문항을 이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각각 '있다'와 '없다'로 응답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0의 값을, 없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여 총합을 구하고 이를 통해 고립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6)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미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①전혀 안 함~⑥매일 읽어줌)를 조사하고, 초·중·고교생의 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자녀의 성적 관리에 신경 쓴다.',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자녀를 격려한다.',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각 질문에 대해 응답항은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응답값의 총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수준은 가구의 근심 및 갈등 초래 문제 중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의 심각도를 묻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해당 문항의 응답항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①)'에서 '매우 심각하다(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다.

〈표 6〉 가구유형별 사회적 고립도 비교

구분	가구유형						
	단독 가구(a)	부부 가구(b)	부부-미성년 자녀가구(c)	부부-성년 자녀가구(d)	무배우자-부모가구(e)	무배우자-미성년 자녀가구(f)	무배우자-성년 자녀가구(g)
n	623	164	194	102	61	130	151
고립도	1.50	0.94	0.75	0.87	1.13	1.21	1.15
F	20.71***		사후검정	a〉b, c, d, g / f, g〉c			

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Welch의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Games-Howell 방법(α=.05)을 활용함.
*** p〈.001

〈표 7〉 자녀 교육 및 양육 참여도 및 양육 문제 심각도 비교

구분		가구유형				t
		부부-미성년자녀가구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n	Mean(SD)	n	Mean(SD)	
자녀 교육 및 양육 참여도	미취학 자녀	109	4.85(1.28)	28	4.18(1.74)	1.92
	취학 자녀	122	15.89(2.84)	108	15.56(2.83)	0.90
미성년자녀 수		193	1.80(0.79)	130	1.45(0.69)	4.03***
자녀 양육·교육 문제 수준		193	3.41(0.92)	130	3.75(1.03)	-3.11**

주: 결측값을 갖는 가구(n=1) 제외.
** p〈.01, *** p〈.001

부담도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 행복도의 차이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는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구유형만을 투입한 [Model Ⅰ]에서 무배우자-부모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유형이 준거집단인 부부-미성년자녀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행복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초기모형([Model Ⅰ])에 가구주의 특성을 추가한 [Model Ⅱ]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모형과 달리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만이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낮은 행복도를 나타낸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가구주의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 여가활동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의 행복도가 낮고, 연령은 고연령일수록 행복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가활동 수가 많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Model Ⅱ]에 가구 특성을 추가한 [Model Ⅲ]의 결과에서도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의 행복도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17]. 더불어

17) [Model Ⅲ]의 분석결과에서 무배우자-부모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가구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부모와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을 공유함에 따라 배우자 부재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

〈표 8〉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Coef.(SE)	Coef.(SE)	Coef.(SE)
Intercept		4.80(0.13)***	1.98(0.37)***	0.44(0.52)
가구 유형	단독가구	-0.90(0.15)***	-0.55(0.14)***	-0.46(0.15)**
	부부가구	-0.51(0.19)**	-0.12(0.18)	-0.15(0.18)
	부부-성년자녀가구	-0.56(0.22)**	-0.07(0.21)	0.01(0.21)
	무배우자-부모가구	-0.43(0.26)	-0.02(0.24)	-0.08(0.24)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0.87(0.20)***	-0.71(0.20)***	-0.65(0.20)***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	-1.06(0.19)***	-0.68(0.20)***	-0.59(0.19)**
가구주 특성	남성	-	-0.21(0.10)*	-0.18(0.10)
	연령	-	0.01(0.00)**	0.01(0.00)
	교육수준	-	0.03(0.05)	0.02(0.05)
	경제활동	-	0.16(0.09)	0.12(0.10)
	여가활동 수	-	0.33(0.04)***	0.31(0.04)***
	주관적 건강상태	-	0.42(0.04)***	0.38(0.04)***
가구 특성	총소득(ln)	-	-	0.02(0.01)*
	재산(ln)	-	-	0.05(0.02)*
	부채(ln)	-	-	-0.02(0.01)***
	주관적 주거상태	-	-	0.08(0.01)***
F		8.27***	25.72***	24.07***
R^2(Adj. R^2)		0.034(0.030)	0.179(0.172)	0.215(0.206)

* p<.05, ** p<.01, *** p<.001

가구주 특성 중에서는 여가활동 수와 건강상태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여가활동 수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구 특성은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가구소득과 재산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반면 부채는 행복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주관적 주거상태는 주거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 역시 높아졌다[18].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였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자료와 참여가구 선정 과정에서 수집된 공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내에서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구원(특히, 배우자)의 부재가 저

편, 해당 가구유형의 사례 수(n=61)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일정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18) 가구소득은 가구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가구유형이 이와 같은 양자(兩者) 간의 관계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통제를 위해 가구총소득에 가구원 수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때 가구총소득은 십만 원 단위로 재구성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모형(Model Ⅲ)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부표〉로 제시하였다.

소득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도구적 취약성과 관련될 수 있고,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의 행복도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취약성을 갖는 저소득층에서 배우자의 부재가 다양한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에 비해 문제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은 현재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함과 동시에 긍정적 정서의 빈번한 경험을 뜻한다. 따라서 취약가구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대 삶(목표)과 현재 삶의 부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와 긍정적 경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복도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소득이 삶의 다양한 기회 참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음(이병호, 2014; 김대건, 2018)을 고려한다면, 취약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확대는 해당 가구의 사회적, 도구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례로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 행복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아동 빈곤 감소와 돌봄, 주거 및 빈곤 완화를 위한 예산을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변미리 외, 2020), 한부모 가구의 빈곤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적 소득이전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한다(이용우, 2006; 송치호·여유진, 2010). 따라서 취약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더불어 취약가구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생활지원(월 65만 원), 건강지원(연 200만 원), 학업지원(학원비 월 30만 원, 수업료 월 15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여성가족부, 2023). 이는 한부모가정(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확대시켜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해당 가구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서울이라는 도시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서울의 저소득가구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고밀도의 생활환경, 지역사회 관계망의 약화라는 대도시적 조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단독가구는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는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며,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는 세대 간 경제적 의존이나 가족 내 돌봄·부양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정책은 가구유형별 욕구와 취약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적 고립 완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체계를 통해 정기적 안부확인, 긴급지원 연계, 생활지원서비스를 결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어서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는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지원, 양육·교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술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중복수급 허용과 같은 제도개선은 한부모가구 자녀의 교육·생활·건강 지원을 보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확인된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의 낮은 행복도 및 양육·교육 부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는 가족 내 돌봄·부양 부담, 세대 간 경제적 의존,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상담·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근래 서울시의 취약가구 정책은 과거 소득 중심의 지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서 벗어나 고립(고립예방센터), 주거(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등), 돌봄(돌봄SOS, 안심돌봄120, 가족돌봄청년지원 등)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취약 대응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체계는 파편화된 사업구조 속에서 사업의 단위 통합성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취약가구를 개별 사업의 수급자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위험을 가진 가구로 인식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연구들이 면밀히 다루지 못했던 가구유형과 행복도 간의 관계를 다양하고 세밀한 가구유형 구분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가용 자원의 취약성을 갖는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고, 가구주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단독가구와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의 행복도가 부부-미성년자녀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배우자의 존재가 행복도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행복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관련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제언도 함께 논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이 연구의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되며,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라는 특정 표본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 해석 시 관련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횡단자료를 이용한 만큼 가구유형과 가구주의 행복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요인의 변화(배우자 유무의 변화 등)에 따른 행복도 변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요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과적 타당도를 제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계점은 행복도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자료의 한계이기는 하나, 이후 연구에서는 다문항을 통한 행복도 측정을 통해 측정 오차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혜진·정해식, 2022,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보건사회연구」, 42(1): 217~237.

곽인숙, 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6.

국가데이터처, 2024,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장래가구추계」, https://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2, (검색일: 2026. 5.24.).

국가데이터처, 2025,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 (검색일: 2026.5.24.).

김가원·황혜신, 2021, “노인 1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김대건, 2018, “소득분위에 따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0: 65~87.

김미곤, 2015,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보건·복지 Issue&Focus」, 274: 1~8.

김미곤·여유진·정해식·박이택·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2014, “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가족과 문화」, 26(1): 237~265.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9): 75~90.

김재희, 2021, “제주지역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복지학」, 77: 1~31.

김태현·홍진의·신영전, 2021, “행복과 건강 관련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텍스트마이닝 분석: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3: 7~39.

류명석·정은하·이석민·최현수·김보름·박재범, 2022,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델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류지아, 2016, “소득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소득효과의 포화점 존재에 관한 분석”, 「한국인구학」, 39(2): 71~95.

박민진·민보경·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4(4): 121~147.

박성복, 2004,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17~233.

박순미·문수열, 2019,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별, 가구유형별 집단 비교”,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3(4): 191~200.

박정혜·오영란·조혜정, 2021, “노년기 여성의 주관적 행복과 관련된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22(9): 190~199.

방영숙·남기민, 2009,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 대처행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6: 215~238.

변미리·박민진·박영미, 2020,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서울연구원·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서울특별시.

송치호·여유진, 201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미국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17(3): 223~255.

신미아, 2021, “가구유형별 성인의 행복감 비교: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2019)”,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77~284.

신희주, 2024, “자원의 부족이 한부모 여성의 유병 출근(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65: 5~34.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우창빈, 2023, “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의 난점: 행복의 측정, 과학적 연구와 정책 실행에서의 문제와 대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32(2): 1~30.

원영훈·윤지웅, 2020,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6(3): 95~137.

유나영·정여진·김비아·정영숙·신현정, 2015, “한국인의 행복 개념 탐색연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민족문화」, 55(5): 197~230.

윤명숙·이묘숙, 2012,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397~413.

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2023년 5월 18일 보도자료.

이민아·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이인정·김미영, 2021,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51~60.

이용우, 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25: 53~80.

이현지, 2014, “동거유형에 따른 재가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 269~290.

임성옥, 2022, “세대유형별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1): 83~93.

전미애·김정현, 2017,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비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1): 283~303.

정해식·김성아, 2019, “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46(1): 185~213.

정해식·권지성·정선욱·김성아·전영섭·권석만·김석호·신혜란·이봉주·채수홍·홍석철·구서정·진예린·유지수, 2019.「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동훈, 2017,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40(3): 79~104.

최경원·임연옥·윤현숙, 2012, “사별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85~104.

최유석·김여진, 2021, “한국인의 행복 격차: 집단 간 변화 추이와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2): 822~836.

통계청, 2020,「장래가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허수연, 2017, “직무부담과 일-가족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구 여성과 유배우자 여성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3(4): 347~370.

홍경준·최희정·민인식·임정민, 2022, “가구 개념에 대한 검토: 어떻게 측정하고, 얼마나 다른가?”, 「사회복지정책」, 49(3): 177~202.

홍현미라, 2010, “저소득 가구의 현금자산형성의 주관적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395~424.

An, J. Y., An, K., O'Connor, L., and Wexler, S., 2008,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elder Korean women: Focus on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9(2): 151~160.

Bolina, A. F., Araújo, M. D. C., Haas, V. J., and Tavares, D. M. D. S., 2021, “Association between living arrangement and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9: 1~10.

Chyi, H., and Mao, S., 2012,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of China's elderly popula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167~185.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and Norton, M.,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under COVID-19", 13~57,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1*, edited by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and De Neve, J.-E.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F., Layard, R., and Sachs, J. D., 2013, "Introduction", 2~7 i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edited by Helliwell, J., Layard, R., and Sachs, J.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and Wang, S., 2026, *World Happiness Report 2026*,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enning-Smith, C., 2016,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5(1): 39~61.

Hoffmeyer-Zlotnik, J. H. P., and Warner, U., 2008, *Private Household Concepts and Their Operationalis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al Surveys, (GESIS-Forschungsberichte - Reihe Survey Methodology, 1)*, Mannheim: GESIS -Leibniz-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

Hwang, E. J., and Sim, I. O., 2021, "Association of living arrangements with happiness attributes among older adults", *BMC geriatrics*, 21: 1~14.

Joutsenniemi, K., Martelin, T., Martikainen, P., Pirkola, S., and Koskinen, S., 2006, "Living arrangements and mental health in Finland",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0(6): 468~475.

Kahneman, D. an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2.

Kashdan, T. B., Biswas-Diener, R., and King, L. A., 2008, "Reconsidering happiness: the costs of distinguishing between hedonics and eudaimonia",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219~233.

Kwak, Y., Chung, H., and Kim, Y., 2017,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by living arrangement among Korean elderly in the KNHANES 2010-2012",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6(11): 1512~1520.

Layard, R., 2011, *Happiness: Lessons from New Science*, Penguin, 정은아(역), 2011, 『행복의 함정』, 북하이브.

McKinnon, B., Harper, S., and Moore, S., 2013, "The relationship of living arrangem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sub-Saharan Africa", *BMC public health*, 13(1): 1~9.

Nikolaev, B., and Rusakov, P., 2016, "Education and happiness: an alternative hypothesis", *Applied Economics Letters*, 23(12): 827~830.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Raymo, J. M., Park, H., Iwasawa, M., and Zhou, Y., 2014, "Single motherhood, living arrangements, and time with children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843~861.

Sandvik, E., Diener, E., Seidlitz, L., 1993. "Subjective well-being: The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self-report and non-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1(3): 317~342.

Smith, K. and Victor, C., 2019, "Typologies of loneliness, living alone and social isolation,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Ageing & Society*, 39: 1709~1730.

Sun, X., Lucas, H., Meng, Q., and Zhang, Y., 2011, "Associations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urban elderly people: a study from China", *Quality of Life Research*, 20: 359~369.

US Census Bureau, 2023, "Census: Glossary", https://www.census.gov.

Wilmoth, J. M. and Chen, P.-C., 2003, "Immigrant status, living arrangem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8B(5): S305~S313.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1, *Advocacy brie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원 고 접 수 일 : 2026년 4월 24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6년 5월 11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6년 6월 29일

〈부표〉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행복도 차이(가구균등화소득 이용)

구분		Coef.(SE)	Coef.(SE)
Intercept		0.37(0.52)	0.42(0.52)
가구 유형	단독가구	−0.44(0.16)**	−0.43(0.15)**
	부부가구	−0.13(0.18)	−0.14(0.18)
	부부-성년자녀가구	0.01(0.21)	0.03(0.21)
	무배우자-부모가구	−0.03(0.24)	−0.05(0.24)
	무배우자-미성년자녀가구	−0.63(0.20)**	−0.63(0.20)**
	무배우자-성년자녀가구	−0.57(0.20)**	−0.57(0.20)**
가구주 특성	남성	−0.18(0.10)	−0.18(0.10)
	연령	0.01(0.00)	0.01(0.00)
	교육수준	0.02(0.05)	0.02(0.05)
	경제활동	0.13(0.10)	0.10(0.10)
	여가활동 수	0.31(0.04)***	0.31(0.04)***
	주관적 건강상태	0.38(0.04)***	0.38(0.04)***
가구 특성	가구균등화소득	0.03(0.01)*	-
	가구균등화소득(ln)	-	0.15(0.05)**
	재산(ln)	0.05(0.02)**	0.05(0.02)*
	부채(ln)	−0.02(0.01)***	−0.02(0.01)***
	주관적 주거상태	0.08(0.01)***	0.08(0.01)***
F		24.01***	24.20***
R^2(Adj. R^2)		0.214(0.205)	0.216(0.207)

* p<.05, ** p<.01, *** p<.001